

동학농민혁명 정신 기린다

제123주년 기념대회 18일 ~ 19일 정읍서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가 9월 18일(월) ~ 19일(화) 이틀간 동학농민혁명기념관(황토현전적지,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승우,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이기곤), 전도교중앙총부(교령 이정희)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및 정읍시가 후원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펼쳐져온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는 갑오년 당시 전국적으로 펼쳐졌던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양상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됐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해, 광주, 태안, 장흥, 상주, 보은 등에서 기념대회가 펼쳐지면서 이 혁명이 지닌 전국적인 양상과 그 면모에 대한 인식의 전

환에 기여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범국민적인 확산에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동학농민군 최초 승전지인 황토현 전적지(국가사적 295호)에서 열리게 될 이번 기념대회는 '동학농민혁명과 한국 근현대사'라는 주제의 학술대회, 역사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념식 및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기념식은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식전길놀이 △본 행사 △기념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 등 내외 귀빈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과 계승·발전을 위해 헌신한 진운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등 3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되며, 김생기 정읍시장에게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명의의 감사패가 전달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의 범국민적 확산과 문화콘텐츠 제작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의 수상자 김진영(대상 / 작품명 : 감오백성)씨 등 3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특별공연 '다시 피는 녹두꽃'은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을 기념, 창작한 작품으로 전주시립국악단과 관소리합창단의 사운드 위에 관소리 도창자 유태평양씨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대서사(大敘事)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무대공연이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인태 국장은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사람이 하는 이다'는 인본주의를 주창했던 참여선열들의 뜻에 비취, 오늘의 현실을 겸허히 성찰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지난 15일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된 제11회 전북축산인 한마음경진대회가 송하진도지사, 김중규 부안군수, 도내 광역·기초의원과 농·축협 축산 관계자 및 도내 축산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도내 축산인 1000여명 '화합 한마당'

한우경진대회·축산물브랜드 전시 홍보 행사 성료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된 제11회 전북축산인 한마음경진대회가 15일 송하진 도지사, 김중규 부안군수, 도내 광역기초의원과 농축협 축산 관계자 및 도내 축산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전북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더불어 축산농가, 가공, 유통, 소비, 연관산업 등 사자의 정보교환과 연대감을 조성하는 행사로서 해가 갈수록 도내 축산인의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4대한우 광역브랜드를 비롯한, 목우촌, 하림, 임실치즈 등 도내 우수축산물 브랜드 10여개

업체가 브랜드전시관을 열어 맛 체험을 실시했다.

전북한우 경진대회에는 시군별 선발된 우수한우의 한우 54두가 출품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고품질 명품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등 한우 개량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중 번식우는 익산시 장승원씨와 남원시 배재호와 완주군 이운자씨가, 미경산우는 장수군 김순례씨가 각각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여 농협전북지역본부장 상패가 수여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수입

개방 확대와 구제역·AI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농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등 농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축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발생, 동물복지, 축산식품 안전성 문제 등 양적 성장에 집중해 온 축산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축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발전을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축산인 한마음 경진대회 행사를 통해 선진축산기술 공유와 축산인 자신감 회복 등으로 도내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성 기자

전국 자전거인 무주로 집결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 700여명 선수 참가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와 네오플라이가 주관한 제6회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가 지난 16일 무주군과 영동군, 김천시 일원에서 펼쳐졌다.

오전 7시(1출발 : 그란폰도-로드, 철인차 / 2출발 : 그란폰도- MTB / 3출발 : 메디오폴도-로드, 철인차 / 4출발 : 메디오폴도-MTB)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을 출발한 그란폰도 참가 선수 1,800명은 영동군 상촌면과 김천시 부항면, 무주군 무풍면과 설천면을 거쳐 적상산(산정호수) 정상까지 달렸으며, 메디

오폴도에 참가한 선수 700명은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을 출발해 설천면전평마을과 무풍면 원평삼거리, 설천면 치마재를 지나 적상산(산정호수) 정상에 도착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그란폰도 피나렐로는 자전거인이라면 누구나 욕심을 내는 경기 중 하나"라며 "민만치 않은 코스라 지난해부터 무주를 오가며 꾸준히 연습을 했던 게 코스를 완주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는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전국의 자전거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레이스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제1회 대회에 280명, 2회 900명, 3회 1,500명, 4회 1,600명, 5회 1,800명이 참가하는 등 해마다 참여 선수들이 꾸준히 증가하며 대회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대회 때도 선수들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고 대회 전 1~2주일 전부터 적응 훈련을 위해 참가자들의 방문이 계속 이어진다"며 "대회가 무주가 관광 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알리고 더불어 지역에 소득을 안기는 등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2일은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날"

전북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22일(금)을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날"로 정하여 행사를 실시한다.

참여대상은 도 분청 및 직속기관 등 소속 공무원이며, 추진방법은 행사 당일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 및 자

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을 실시함으로써 저탄소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실천 분위기 조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일 출근 시간대(오전 6시~오전 9시)에는 자가용 사용자에 대한 청사 내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차 하는 일

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차 없는 날(9.22)'을 맞아 친환경 교통주간(9.18~9.22) 운영기간에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이 기간에 지역 실정에 맞는 기념행사나 각종 프로그램 등을 진행, 공공기관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을 통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도, 추석명절 공직기강 다잡아

연휴기간 비리 차단... 특별 감찰활동 전개

전북도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복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과 도민 편의시설 관리 실태 등을 점검 점검, 도민들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도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반 23명으로 편성, 감찰반원들은 행정부지사의 지휘아래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직무와 복무에 대해 노출과 암행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직감찰 기간 중에는 추석명절을 빙자한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정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행위,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지연처리 행위, 재난, 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과 함께 명절 특별교통 안전대책, 서민 불가안정관리 대책, 비상진료 대책, 여객터미널, 역사(驛舍) 등 공공시설 청결상태 및 각종 편의시설 관리 실태 등 추석명절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 여부도 감찰할 계획이다.

도 박용준 감사관은 "추석명절 공직감찰은 도민뿐만 아니라 귀성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요한 감찰활동이고, 추석명절 직무태만 등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빈번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공직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